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15, 마가복음 9:2-50, 변형, 귀신 들린 소년, 제자도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2-50, 변형, 귀신과 함께한 소년, 제자도에 대한 세션 15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연구하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9장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사건은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인 예수의 변형입니다. 변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그 자체로 사건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변형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그리고 변형 자체가 우리를 무엇에 준비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본문을 읽어봅시다. 우리의 관습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논의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2절부터 시작합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빛나고, 땅에서 아무도 표백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은 예수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천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켰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더 이상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스스로에게만 간직하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는 엘리야가 왔고, 그들이 그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변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즉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이 사건과 모세가 산에 오르는 것 사이에 몇 가지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내부 서클의 일부로 알게 된 세 제자를 여기 데려갑니다. 모세도 산으로 올라가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세 인물과 70명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는 변형됩니다.

그의 옷은 빛나게 하얗게 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도 표백으로 만들 수 없는 만큼 하얗게 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피부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산에서 내려올 때 빛납니다.

그리고 신은 두 가지 모두 구름을 가리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구약성경에는 신현이 있지만,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일어난 일에 놀랐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모세에 대한 이러한 언급과 유사점들 사이에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모세의 순간이 예수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덜하다는
의미에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와 그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작업하면서 한 가지, 다시 말해서, 이 처음 세 명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변형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예수께서 겐세마네로 조금 더 멀리 데려가시는 세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이 세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 혼란의 측면에서 베드로는 종종 열두 제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만, 요한조차도 나중에 그들이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이지만, 그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마가복음에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변형되었고, 그는 영광 속에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일부는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이 예수의 영광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가깝거나, 예수가 때때로 그가 영광으로 올 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상했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보입니까? 어쨌든,
보이는 것은 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있습니다.

이제 순서가 흥미롭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사실, 보통은 예상했겠지만 모세의 우월성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합니다.

저는 마가가 엘리야를 먼저 두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종말론적 순간을 강조하는 것의 일부는 엘리야가 하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우리는 왜 그 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이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모세는 확실히 율법을 대표할 것이지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기에 이상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기록된 예언서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책이 더 기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모세가 선지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예언적 명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신명기 18장은 예언자 모세처럼 올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엘리야와 모세가 여기에 있는 이유 중 일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산에서 신현을 경험했습니다. 둘 다 종말론적 기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라기서 4:5는 엘리야와 모세를 엘리야의 귀환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날을 기대하세요. 신명기 18장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를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모세는 둘 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소망, 곧 다가올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 실제로 말하는 두 인물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대했던 절정이 지금 다가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왜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두 인물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위대한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할 사람들은 그 종말론적 현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피터의 답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피터는 또한 그의 답변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는요.

첫째, 베드로는 예수께 "랍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랍비가 어떻게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예수는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의 랍비가 수용 가능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천막 셋을 만들자.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셋의 초막이나 셋의 초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한 일이 예수에 대한 엄청나게 높은 진술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엘리야와 모세,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고, 지금은 현재에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그들 중 한 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예수에 대한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초막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막, 이 초막은 베드로의 생각의 일부로 초막절을 생각하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는 보통 포도 수확절 이후 9월이나 10월에, 헌신절 2개월 전에 기념되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일을 따랐고 종교적 축제의 연례 주기의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제 생각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성경 이야기 전반에 걸쳐 어떻게 표현되는지입니다

.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시작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들이 초막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스가랴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현재 하나님께 의존하고 신뢰한다는 선언이 되며, 이는 그가 계속 만날 그 축제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이 이 수확의 아이디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가 계속해서 그의 백성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끌려온 스가랴의 측면과 함께, 이 축제에는 종말론적 측면도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술 축제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상호작용하고 행동하신 이야기의 거의 전부를 출애굽 사건에서 백성을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으로 이끌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베드로가 "세 개의 천막이나 초막을 만들자"라고 말할 때, 그가 유대인 축제의 측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가장 위대한 표현을 끌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개의 천막을 만들고, 여기서 초막을 표현하자"라고 말함으로써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 생각할 때, 그가 이 순간에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실수 중 하나는 그가 하나 대신 세 개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증거하는 것, 말하자면 예수가 하는 일을 입증하는 것의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모세,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도착과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은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스트레스의 주제는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이 남아 계시고, 의미가 있다는 것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음성도 이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6 절에서 베드로 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 거의 이 장면을 방해하듯이, 구름이 그들을 덮쳤고, 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시편 2장 7절의 메아리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세례에서 하늘과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신성한 증거가 이 왕의 시편에 들어와 예수가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여기서 주입되는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저는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 이미지에서 산, 신현, 증인의 등장,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요소들이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나와 같은 존재, 즉 여러분의 형제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가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말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의 말을 경청하는 이 명확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이 모든 것을 통해 강조해 온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즉, 예수는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모세가 무슨 뜻인지 토론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도록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있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는 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목격한 이 영광스러운 변형이나 모세나 엘리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당신은 이 메시아적 비밀 속에서도 예수께서 연결하고자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모세와 엘리야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의 아들 예수가 부활한 후에야 완전하고 진실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들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종말론적 이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에게만 간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이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시거나 인자가 부활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역사의 중간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앉아 "인자가 죽음에서 부활할 때까지" 라고 말할 때 그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이것에 맞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이 인자와 연관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집단과 대조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특정 개인은 그들이 씨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이러한 언급, 엘리야에 대한 이러한 언급, 엘리야에 대한 이러한 환상을 통해 그들이 엘리야가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에게 물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야의 역할에 대한 이 질문은 아마도 예수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가 제자들에게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엘리야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분위기는 확실히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흥미롭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논리는 때때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먼저 대답하셨는데, 이는 드문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보통 서기관들의 옳음을 확인하시지 않지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생각은 말라기 4:5, 6에서 나오는데,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떠남은 그의 도착에 대한 신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열왕기하 2:11과 엘리야가 떠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이 질문은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고, 예수는 그것을 확증합니다. 그는 심지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한 뒤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조차 하지 않은 채, 그는 인자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논쟁의 요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인자의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예언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엘리야의 진술을 확증한 다음 인자에 대한 그의 가르침과 연결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온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엘리야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엘리야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여겨진다. 세례자 요한은 이 엘리야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엘리야가 왔고, 그들은 그에 대해 기록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했다.

이것이 두 가지 사이의 연결고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처형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진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인자가 가져오는 승리를 다시 생각해야 하듯이, 엘리야 선구자와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회복이 모든 것에 대한 위대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지만, 모든 것에 대한 위대한 승리가 고통과 죽음 속에 있다면, 회복도 비슷한 차림새라는 것은 말이 됩니다.

엘리야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의 위대한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십자가에서의 인자의 큰 고통은 실로 큰 승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도착에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진술이 틀리지 않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도달하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9장을 계속 생각하고 14-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면은 옳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온 무리가 그를 보고 크게 놀라 달려가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리 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병어리가 되는 귀신이 있어서 그를 붙잡으면 그를 쓰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쫓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합니까? 그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들은 그 소년을 그에게 데려왔습니다. 영이 그를 보고 즉시 그 소년을 경련하게 했고, 그는 땅에 쓰러지고 구르며 입에서 거품을 뱉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일어났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불과 물에 던져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치며 말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병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는 큰 소리로 그를 몹시 경련시키고 나서 나왔고, 그 아이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들어올리시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에게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떠나 갈릴리를 지나갔고,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14-29 절의 이 구절은 흥미롭습니다.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위대한 변형의 순간에서 예수의 사역의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악마의 엑소시즘에서 도움과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마가 이 소년의 어린 시절부터 꽤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우리가 예상했듯이 파괴적이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마들이 파괴적인 짓을 시도하는 것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는 소년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를 불 속에 던지고, 물에 던집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첫 번째 상호작용은 도움을 간청하는 이 남자와 함께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사역 경험에서 방금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남자와 교제하기 위해 돌아서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의 이 책망을 듣습니다. 오 믿음 없는 세대여,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부정적인 세대 언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심과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 믿음 없는 세대, 이 현 세대가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근육질의 행동을 한

아버지와 함께, 말하자면, 이 소년을 예수께 데려가려고 노력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는 그 대답에 분노하고, 그것은 할 수 있다면이라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꺼이 한다면, 나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기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을 해주세요. 당신이 할 수 있다면이라는 표현은 그 남자가 예수님의 능력이 충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그 일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무능함은 이제 예수님의 무능함에 대한 걱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그에게 되돌려 주신 도전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도전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근육질의 반응,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반응을 원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아온 패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 생각에, 아마도 신앙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을 정말 잘 요약한 진술이죠. 아버지나 아이가 두 가지를 외칩니다.

하나, 나는 믿는다. 글썄, 그 자체로 간단히 오, 나는 믿는다는 대답일 수 있다. 하지만 아마도 더 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두 번째 진술이다.

나의 불신을 도와주세요. 그것은 거기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부족은 그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제자들 스스로가 얻지 못하는 제자도에 대한 큰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능함에 대한 걱정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나중에 누가 위대하고 누가 가장 위대할지에 대한 자랑 중 일부나 심지어 수난주간의 마지막에 이르러 베드로가 다른 모든 사람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한 것까지 있습니다 .

그들이 이런 종류의 담대한 진술로 일하고, 아마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불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진술을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더러운 영을 꾸짖습니다.

거기에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의 즉각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 이 순간 전체는 사실 우리가 복음서의 앞부분에서 본 것과 같고, 첫 여덟 장을 특징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카이사레아 빌립보의 주의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수에게 집중된 가르침에 대한 이 섹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에서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일어나는 가르침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소시즘 후에 그가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과 비밀리에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28절을 보면, 그들이 왜 우리가 그것을 쫓아낼 수 없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흥미롭습니다. 이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질문은 그들이 왜 그것을 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는 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제자들의 실패 의 마음은 예수에 대한 이 응답에 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 예수는 이것이 기도로만 쫓겨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의미하는 것이 특정한 공식이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기도의 자세, 기도가 갖는 의존성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설계하고 지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스스로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종류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몰아낼 수 없다고 대답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빨리 넘어가고 싶고, 가능하다면 9장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50절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거기로 가서 갈릴리를 지나갔는데,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문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 두 구절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중 하나는 다음 수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31 절의 다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한 메시아적 비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아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기가 계속 퍼진다면 이 가르침 중 일부를 막거나 적어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 하나는 그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사람들의 손은 누가 전달하는지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서 다른 무리의 사람들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특정 집단에 의해 통치자나 판사나 지도자들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것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여기 31절에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자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행하신다는 생각의 배후에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고통받는 종에 대해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는 넘겨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곳에서 전달에 대해 매우 유사한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수난의 신성한 조율에 대한 힌트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초기 교회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죽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면에 삽입된 것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후에 죽임을 당하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나왔는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가 갈릴리에 있을 때 그의 본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34절에서 그들이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 시작했듯이, 제자들은 종종 그것과 관련된 당혹감이나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침묵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해 서로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21세기 서구적 맥락에서 특히 자기중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명예와 부끄러움으로 이해되었던 고대

세계에서는 그들이 누가 어떤 지위에 있을지에 대해 약간 자랑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에 반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경쟁처럼 보이는 그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묵을 지킨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듣고 있어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이 아마도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그는 이것을 가르치는 순간으로 만듭니다.

그는 앉아서 앉는다는 생각을 가진 12명을 불렀고, 이제 그것에 대한 교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르침의 목적이며, 나머지는 그에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주요 아이디어이고, 지위를 이해하는 방식의 역전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두고 팔에 안고,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나머지 9개를 할 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수업에서 다시 시작할게요. 다음 수업에서 다시 시작할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고대 세계에서 아이가 무엇이고, 우리가 아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서양에서 아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이를 순수함의 완벽한 표현, 오염되지 않은 것, 잠재력, 준비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고대 세계의 아이는 문화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그들의 아들 또는 딸에 대한 보살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지위가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의미가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존적이었고, 약했으며, 기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는 제자들이 누가 가장 위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첫째와 마지막의 역전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무고한 것이 아니라 낮은 지위와 낮은 가치의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이는 세상이 이해하는 것처럼 명예, 수치 범주에서 하위 계층의 표현의 완벽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그런 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고 저는 이것이 누구든지 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서 아이는 은유이고, 아마도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또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낮은 지위를 보는 사람, 내 이름으로 지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언급된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에게 가는 건가요? 그것이 논쟁 중 하나입니다. 내 이름으로 또는 내 이름으로 그런 아이를 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이름으로 그런 아이를 받는 사람인가요, 즉 아이와 관련된 내 이름으로 받는 사람인가요?

여기서의 의미는 내 이름으로 된 언어를 아이와 연관시키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따르는 낮은 지위의 사람, 나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가 예수의 추종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추종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선포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가르침 전반에 걸쳐 그의 추종자들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과 그를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끊임없이 엮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 지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만, 나를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영접하는 자, 예, 나는 예수님을 내 면전으로 영접한다고 말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은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볼 것이 순수함, 결백함, 잠재력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9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가고 싶고,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2-50, 변형, 귀신과 함께한 소년, 제자도에 대한 15 번째 세션입니다.